



교 훈
진리 · 창조 · 봉사

Librar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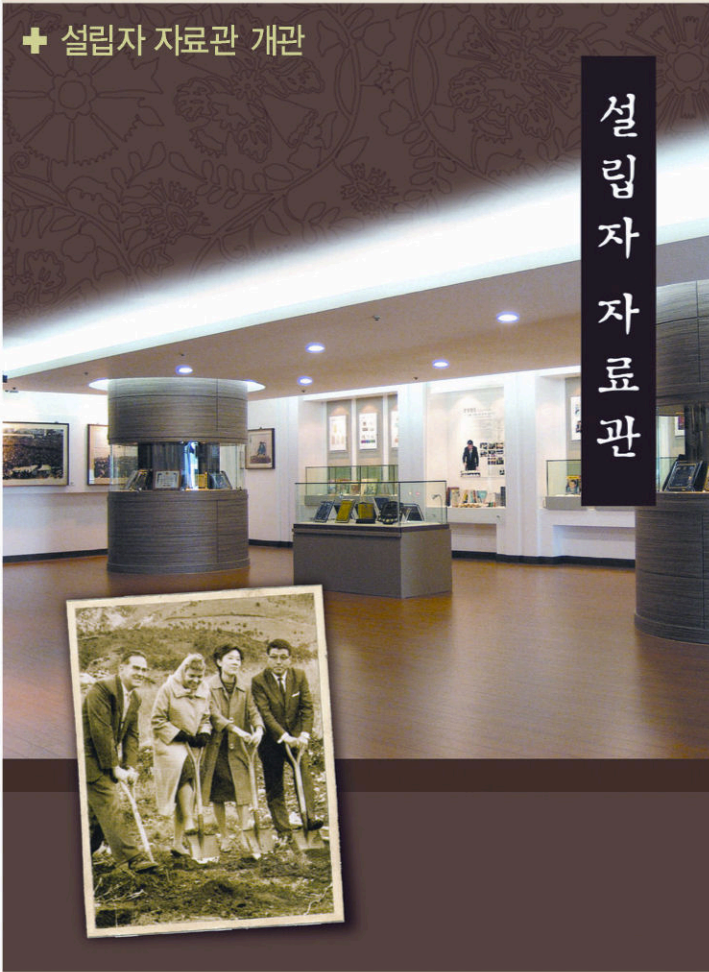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제14호 2008년 12월 도서관 소식 (반년간) DONGSEO UNIVERSITY LIBRARY NEWS 발행인 : 박동순 / 발행처 : 민석도서관 T. 051-320-2065

Headline News

+ 설립자 자료관 개관

설립자 자료관



2008년 5월 19일 민석도서관 5층에 '설립자 자료관'을 개관하였다. 본 자료관은 동서학원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학원의 역사를 체계있게 정리하여 보전함으로써, 설립자 장성만 박사 내외분의 뛰어난 업적을 제대로 알리고, 또 내일을 위한 지표로 삼는 동서학원 '역사교육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동서학원 설립자 민석 장성만 박사의 아호를 빌려 명명된 민석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학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들의 상호협력의 중심기관으로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종합 학술정보센터로서 그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었다.

※ 자료관의 구성

설립자 자료관은 크게 장성만 박사의 세 분야의 부름, 즉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그리고 '문필활동'과 '동서학원 발전과정' 등 다섯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600여장, 관련자료 1,300여점)

① 첫번째 부름 ; 종교계



- 대교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일본, 미국 유학
- 대학교회의 변천/크리스천21세기포럼 창립

② 두번째 부름 ; 교육계

- 동서학원 태동
- 부산 최초의 전문대학 동서기독교실업학교 설립
- 성장의 거듭, '각분야 최우수 대학 연이어 선정'

③ 세번째 부름 ; 정치계

- 국회의원, 당 정책의장, 부산시지부위원장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이룬 7대복지정책개발 등 중요 의정활동 조명



④ 문필 활동

- 25권의 저서 및 신문, 잡지에 기고한 기고문 전시

⑤ 동서대의 도약

- 교육개혁 우수대학 4관왕
- 저명인사 방문
- NURI사업 전국 최다(5개) 선정
- 세계총장회의 개최
- 세계 우수 대학과의 학술교류

※ 설립자 및 동서학원(3개 대학자료)를 계속 찾습니다.

- ▶수집대상
 - 사진, 신문, 잡지 : 설립자와 학교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
 - 문헌류 : 학교인증서, 졸업 성적표, 회의록, 행사пам플렛
 - 기념품류 : 교표, 학부 및 과기, 상장, 행사록, 문구기념품
- ▶접수처 :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5층 설립자 자료관

지역인사 칼럼



평생교육의 장, 민석도서관

노 영 택 | 주례중학교 교장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시대를 표방하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받았던 학교 교육만으로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평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 고령 인구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바람직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의 자아발전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OECD는 정보통신기술의 보편화, 정보사회의 발전과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평생학습의 사회적 인식 확대 등으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만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도서관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고(Warehouse)에서 정보에 대한 통로(Gateway), 전통적 도서 보관 기능의 컨테이너(Container)에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엄숙한 교육의 장에서 교사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사교의 장 내지 휴게실 기능으로, 찾아오는 방문자를 위한 수동적 정보 축적 및 제공의 장에서 적극적 지식 창출의 장으로 전환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춘 대학 도서관이 있으니, 바로 동서대학교의 민석도서관이다.

민석도서관은 운영면에서 특이하게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카트에 싣고, 여러 계산대 중 하나를 택하여 계산하는 일종의 마트와 같은 도서관 운영 방식을 택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책을 선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적절히 열람석이 배치되어 있고, 읽고 난 뒤에 그냥 던져둘 수 있게 여기저기에 반납대가 비치되어 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열람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접근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을 비롯한 자료 이용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열람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동서대학교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나는 지역주민으로서, 교육자로서, 평생학습자로서 우리 이웃에 이렇게 멋진 도서관을 가진 행운을 흠뻑 누려 보고자한다.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배움을 민석도서관에서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다.

부산점자도서관 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10월 6일 뉴밀레니엄관 글로벌룸에서 부산점자도서관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은 시각 장애인과 독서 장애인들에게 지식정보 및 문화정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서관 사업과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양 기관의 소장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 문화행사에 따른 도서관 시설 지원 등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박동순 총장은 “시각·독서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점자도서관과 아름다운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점자도서관장은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힘을 보태준 동서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번 협약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소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박동순 총장, 양상백 교무처장, 정종택 인사평가처장, 조경미 민석도서관장이 참석했으며 부산점자도서관에서는 이경혜 도서관장, 최정규 총무과장, 김진 도서제작과장이 참석했다.



제7회 독후감 공모 및 당선작 발표

민석도서관에서는 교양교육원과 함께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독서능력 배양, 도서관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 3일 부터 2008년 11월 22일(토) 까지 동서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85편이 출품되어 최우수작 1편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최정재, 우수작 3편 공공사회복지전공 김희정, 영어학과 이윤정, 회계정보학전공 임현주, 가작 5편 사회복지학전공 설희진,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박민규, 일본어학과 윤지혜, 사회복지학전공 송지향, 임상사회사업전공 조현주 학생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제7회 독후감 공모전 후기 (종합심사평)

이번 민석도서관과 교양교육원이 주최한 독후감공모전에는 총 85편이 응모하였다. 해마다 응모작이 늘어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 성실한 학과 공부에다 지적 안목의 심화를 위한 책 읽기의 습관은 대학생의 전범일 것이다. 게다가 책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후감을 통한 자기정리까지 한다는 것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독후감을 보내주어 심사하는 내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다음의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첫째, 도서의 내용과 자신의 견해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폈다. 독후감 운영의 취지가 읽고 쓰기에 있으므로 읽기와 쓰기를 잘 소화해 낸 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독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넓고 깊게 발전시켜 가는 글을 선정하였다. 책을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지은이의 생각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며 책과 나 사이를 오가며 사색하는 독후감이 좋은 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글의 형식이 짜임새 있고 문장이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글을 선정하였다. 요컨대 완성도와 창작성, 구성도를 살폈다는 말이다.

하지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인가를 평가하는 부분과 문장과 구성의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보인 글이 있었다. 또한 남의 글을 옮겨 적은 글도 있었다. 이는 심사에서 제외했다. 심사위원들이 윤독하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3편, 가작 5편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은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끌어냈으며, 표현의 참신성이 후한 점수를 받은 요인이다. 우수작의 세 작품은 모두 글의 구성이 탄탄하고 책에 대한 내용 정리와 평가는 잘 되어 있다. 하지만 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너무 강하거나 독서평론의 느낌을 주는 글이 있었다. 가작 5편의 경우 무난한 편이나, 부분적으로 생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점, 상투적 소감이나 표현이 있는 점 등이 아쉬웠다.

2학기 전자저널 및 웹DB 이용교육



민석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있는 전자DB와 전자저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2학기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시: 2008년 9월 30일(화) 14:00~15:00
- 장소: 민석도서관 4층 정보교육실

사진사랑동호회 제1회 사진전



동서대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진사랑동호회의 제1회 사진전이 11월5일부터 7일까지 우리대학 민석도서관 1층 U-갤러리에서 열렸다. 이 사진전에는 아름다운 풍경, 인물 사진 등 작품 30여점이 전시되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주었다.

- 일시: 2008년 11월 5일~11월7일
- 장소: 민석도서관 1층 U-갤러리

독도 사진 및 도서 전시회



민석도서관에서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도 사진 및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1) 전시내용 : 독도관련 사진 50여점, 독도관련 도서 200여권, 독도관련 DVD상영
- 2) 일 시 : 2008년 11월 18일(화) ~ 11월 27일(목)
- 3) 장 소 : 민석도서관 1층 U-갤러리
- 4) 사진제공 : 경상북도 도청 독도수호대책본부

제 23회 작가와의 만남

제 23회 작가와의 만남은 '적은 내안에 있다'의 작가 남강님을 모시고 '마음 이야기'란 제목으로 2008년 11월 14일(금) 오후 3시 민석도서관 6층에서 성황리에 가졌다.



작가 소개

[약 력]

- 출생 : 1978년 서울 출생
- 학력 :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경력 : 독서카페 운영
(cafe.naver.com/masterbook)

[저 서]

- 적은 내 안에 있다, 평단, 2005년
- 내 인생을 바꾼 마법노트, 평단, 2007년
- 마법사, 평단, 2007년

남 강

작가 이야기

“책 같은 건 읽지 않아도 좋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 권의 거대한 책이고,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싶다면 그만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습에 책만큼 효과가 큰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작가.

작가 남강은 서울 토박이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쓰러져 가는 책더미에 묻혀 책읽기에 빠져 지냈다.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 중학교, 중경 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공부했다. 한때 광고 대행사에서 일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도서관에 파묻혀 1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었다. 2005년에 출간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이때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기계발 에세이' 다.

『내 인생을 바꾼 마법노트』는 지난 2년 동안 줄거리를 구상하고 심혈을 기울인 실험 소설이다. 또한 『적은 내 안에 있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였다. 지금은 책을 매개로 독자들에게 인생의 안내자로서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작가가 되고 싶어한다.



제23회 작가와의 만남 후기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20041552 박준석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대학생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버스 타고 학교 와서 수업 받고 그냥 밥도 먹고 그냥 놀기도 하고 다시 집으로 가고, 그렇게 매일, 매주 늘 반복된 일상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각자 그들만의 꿈이 있을 것이고, 인생관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생을 걸만한 꿈이 있으며, 또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 2학기 어느 한 작가의 강연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강이라는 작가님은 글을 쓰다 목숨을 잃는다 해도 평생 글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돈벌이는 아직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게 꿈이고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작가 남강은 '내안의 적'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대학, 직장을 뒤로한 채 도서관에 틀어박혀 1년 동안 1,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사는 사람들에게 '내안의 적'을 다스리는 법과 그것을 통해 주체적인 성공을 이뤄내자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꿈이 있고 욕망이 다 있다고 합니다. 단지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며 언젠가는 찾게 될 것이고 꼭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을 어린 나이에 찾기도 하고 50, 60세가 넘어서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은 남강 작가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꿈을 찾지 못한 저로서는 아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래, 맞다. 나도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무언가가 꼭 있을 것이다. 평생을 해도 질리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걸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찾기 위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겠지만 내가 바라는 꿈의 이상향을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정의는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알려주신 남강 작가님이 미울 때도 있지만 꿈을 찾을 수 있게 밑거름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제 4회 독서토론회 개최

| 치열한 토론 현장 속으로...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책임기와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제 4회 독서토론회가 '독도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2008년 10월 22일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신청팀을 접수한 결과 총 17팀이 신청하여 그 가운데 10팀을 선정하여 소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관광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사회복지학부, 국제학부, 건축토목시스템공학부, 외국어학부 등 다양하였고 학년도 1학년에서 4학년 등으로 다양하였다. 소주제 발표는 독도현황(국제법 포함), 독도의 역사, 독도 논란의 배경(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등), 독도의 경제적·군사적 가치, 독도의 자연과 생태적 가치, 독도의 지질과 학술적 가치, 독도와 문화(문학, 노래, 만평), 독도관련 도서 소개, 독도는 왜 일본땅인가, 일본의 시각에서 본 독도 등이었다.

심사는 민석도서관 운영위원회 교수 2인과 교양교육원 교수 2인 등 4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개별심사와 합의심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1위에서 4위 팀까지를 선별하였다. 심사는 분석력, 근거, 구성 및 발표력, 창의력, 토론에서의 언어 구사능력 등 5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상·중·하로 평가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여러 사실과 자료를 많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시한 경우와 발표와 토론의 태도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우수하고 진지하여 심사에 어

려운 점도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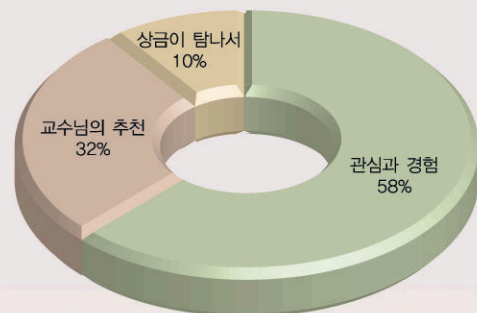
그 결과 1위팀은 컴퓨터정보공학부 김제일, 박옥규 학생 팀이 2위팀은 사회복지학부 심아름, 하지영 학생팀이 3위팀은 사회복지학부 임청주, 정혜은 학생팀이 4위팀은 국제학부 유요섭, 임준열 학생팀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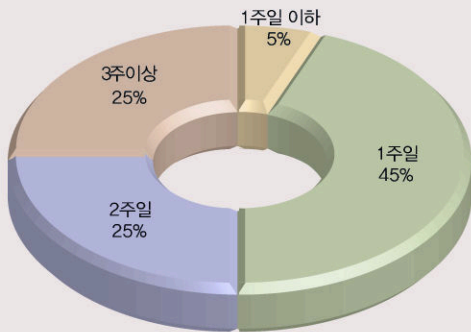
| 독서토론회 설문조사

토론회가 끝나고 참석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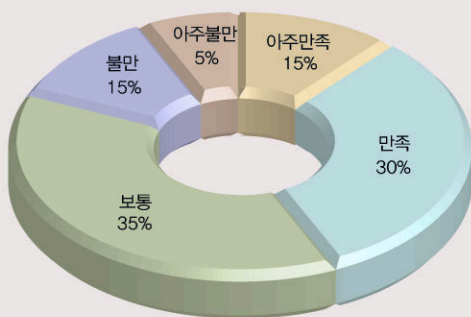
1. 독서토론회에 참여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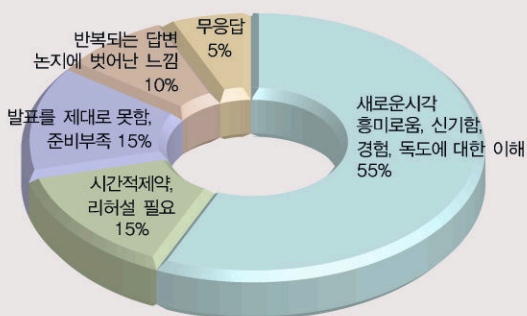
2. 독서토론회를 준비한 기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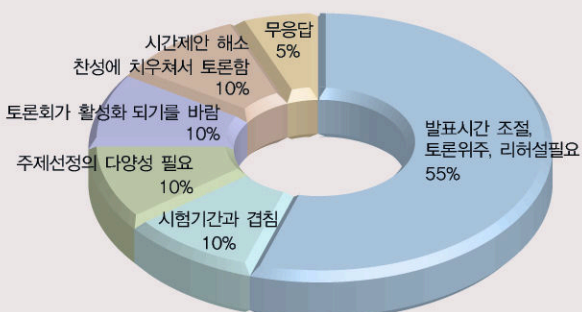
3. 독서토론회를 평가한다면?



4. 독서토론회에 참여한 느낌은?



5. 독서토론회에 바라는 점은?



Multiplex 영화 상영

민석 도서관 Multiplex에서는 도서관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주제를 선정 우수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9월 |

주제 : 과학의 미래



10월 |

주제 : 일본영화 걸작선



11월 |

주제 : 영화와 음악



12월 |

주제 : 영화전문가와의 만남

기획, 제작분야 전문가이신 박건섭학장과 김대승 영화감독을 모시고 그분들의 작품세계와 영화 뒷이야기, 영화인생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한다.

- 일시 : 2008. 12. 8 ~ 2008. 12. 29 오전 10:00~12:00
- 장소 : 민석도서관 1층 Multiplex
- 내용 : 박건섭 학장 <꽃잎>, <약속>, <엽기적인 그녀>
김대승 감독 <혈의 누>, <가을로>, <번지점프를 하다>

※본 행사는 도서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한권의 책 | 『순전한 기독교』



엄 필 교 | 동서대학교

이 세상에는 왜 이토록 무수히 많은 책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사람들 모두가 제각각 다르듯 읽는 책 역시 다르기에 수많은 책이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 의문을 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집어든 한 권의 책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의 다른 표현이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자신이 읽은 책을 남에게 소개할 때 대개의 경우 순수한 의미에서의 책 내용보다는 그 책의 성격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배경으로, 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지..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책을 쓴 C. S Lewis는 대중을 상대로 설득력 있게 기독교를 소개한 작가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종파 간의 이견을 뛰어넘어 기독교인들의 ‘최대공약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로의 초대를 위한 책에, 또한 일반 기독교인이 읽는 책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종파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종파에 상관없이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이 책의 눈에 띄는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까요? 신도들끼리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는 참 막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거나 막무가내로 교회를 다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잘 정리하여 조리 있게 설득하기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반응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흔히 우리는 당황하기 십상일 테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존재를 증명해 보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탄탄한 무장을 하게 해 줍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타인을 설득하는 힘까지 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 남을 설득하여 기독교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쉽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에 대한 개념들, 즉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내면적인 정돈과 조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도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완성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 나갑니다. 기본덕목, 사회도덕, 성도덕, 결혼의 문제, 용서, 사랑, 믿음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적지 않은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대답들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는 책을 발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의 바탕과 근거가 되는 지식을 얻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사색과 많은 배움, 깊은 감동을 받았기에 널리 추천하여 함께 나누고픈 한 권의 책입니다.

저 자 : C. S 루이스

역 자 : 장경철, 이종태

발행년도 : 2001년

출 판 사 : 흥성사



민석도서관 시설 이용

1. 다목적세미나실

06/11	동서누리사업 휴먼서비스네트워크사업단 산학협정식
07/09	동서대학교/경남정보대학 사상구 초등학교 교육지원 협약식
07/18	국제교육센터 한국어 교육과정 제1기 수료식
07/31	2008년 2학기 미국 SAP Placement Test 및 오리엔테이션
09/09	한일 6개 대학 공동세미나
09/19	사회복지학부 산학협력 워크샵
09/27	패밀리기업협업체 워크샵 개최
09/29	비즈니스 핵심인재 양성-시간관리 특강
10/11	일본어 교사 초청 특강 및 간담회
10/14	비즈니스 리더십 FeLT 특강
10/16	NURI-한상사업단 국외 한성특강
10/23	동서누리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사업단 청소년자원봉사특강 프로그램
10/30	부산여성희망포럼 특강
10/31	한일 대학생 교류세미나
11/13	주부산러시아영사 부인 초청 특강
11/14	제23회 작가와의 만남

2. Multiplex

2008년 한국어 문화체험 프로그램 영화상영

3. 정보교육실

09/19	학생상담센터 Peer Counselor 교육
10/09	기업직무이해를 위한 특강

4. 국제세미나실

10/09	한상사업단 2008년 추계학술 공동 세미나
10/11	부산 교육협의회 10월 월례회
11/12	일산기독병원 김형 원장 초청강의



민석도서관을 방문해 주신 분들

07월 04일	일본고베예술공대학장 일행
07월 31일	Ms.Weili Lin 미국 호프국제대학 국제교류책임자
08월 04일	부산영상위원회 일행
08월 18일	성산호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일행
08월 30일	일본 후쿠오카시 吉田宏 시장
09월 23일	송해성 감독 일행
09월 29일	문목회 일행
10월 01일	사상구 담임목사 모임 일행
10월 06일	부산 점자도서관 관장 일행
10월 07일	사회복지협의회 사상구지부 일행 정지영 감독 일행 중국산동대 총장 일행
10월 10일	영국교육위원회 위원
10월 22일	베트남 국립 하노이대 부총장 일행
10월 23일	일본 타카하시학원 이사장 일행 중국 국가한판 전일정 고문 일행
10월 29일	우즈베키스탄 세종한글학교 교장 일행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일행 씨네2000 대표 일행
10월 30일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 학장 일행 부산여성희망포럼 참가자 일행
11월 12일	장현수 감독 일행
11월 13일	주 부산 러시아영사 부인 일행 성산 호대학원 대학교 총장 일행

2008년도 자료기증자

| 설립자 | 장성만 | 총 장 | 박동순

| 교수 |

조경미 · 김정선 · 남인영 · 성치경 · 유인희 · 이상준
이용규 · 이진호 · 임 혁 · 전현중 · 조필립스 · 강주수

| 직원 |

배동환 · 박광중 · 김경옥 · 안성두 · 나기성 · 안재곤
박현주 · 김진호 · 안혜진 · 공승무 · 문은식 · 박병욱
박상률 · 박성오 · 배종도 · 이일천

※올 해도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